

지역 배추 한 포기 8천원 육박 농산물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기후+인플레이션〉

광주 한달 새 가격 55.3% 올라
무·상추·파프리카 등도 상승
시금치 등 일부 품목 품귀 현상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가파르게 뛰어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이 7천원을 넘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따르면 전날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7천62원으로 작년보다 9.3% 상승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5.2%로, 한 달 새 한 포기에 2천500원 가까이 급등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배추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광주지역 배추 한 포기 가격이 8천원에 육박했다.

이와 같이 이상기후가 불러온 농산물 가격 폭등(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편 가격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 배추(한 포기) 소매 가격은 7천577원으로 전년 대비 1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6천404원)과 비교해 보면 18.3% 높은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의 평균값이다.

배추 가격은 지난달 18일 4천880원이었으나 한 달 사이 2천697원이 상승해 55.3% 치솟았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이에 대해 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배추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무(1개) 소매 가격도 한 달 사이 2천830원에서 2천990원으로 5.8%, 상추(100g)는 같은 기간 1천313원에서 1천517원으로 15.5% 올랐다.

특히 파프리카는 1천147원에서 2천170원으로 89.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과일류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다.

배(신고·10개)는 18일 기준 3만2천650원으로 지난해(8만5천83)보다 61.6%, 한 달 전보다는 3.27% 저렴했다.

캠벨얼리 포도(1kg)도 한 달 사이 18.0% 낮아진 1만2천60원에 거래됐고 여름철 대표 과일인 백도 복숭아(10개)는 같은 기간 2만8천267원에서 2만4천733원으로 12.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상 기후로 인해 일부 품목은 전통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시금치는 지난달 18일 2천40원에서 한 달 사이 2천533원으로 24.1% 상승했고 브로콜리는 같

은 기간 2천457원에서 3천160원으로 29.7% 올랐지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aT 관계자는 작황 부진과 공급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파악했다.

aT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의 주산지인 강원도에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대량 매입이 어려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 특성상 앞으로는 집중호우나 폭염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후원금 총 1억5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19일 고병일 광주은행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금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된 후원금은 주거비와 긴급 의료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청년들의 실제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등 금융 교육을 함께 제공, 청년들이 한 걸음씩 자립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보호 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의 중요한 시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따뜻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코스피만 ‘나홀로 하락세’…美 경기흐름 확인해야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는 2주간 3천2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세계 개편 실감감을 계기로 정책 기대 약화와 2분기 실적 시즌에 차익매물 출현을 들 수 있겠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계개편안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고 증권거래세율 0.15%를 0.2%로 인상하고 법인세율 구간별 1% 포인트 상향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역행하며 그나마 부양책으로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최대35%) 도입도 요건이 까다롭고 세율도 당초 예상했던 20%보다 높아 시장의 실망만 키웠다.

개편안 발표 직후 거센 개인투자자 반발에 여당은 ‘50억원 기준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이 원안 유지를 시사하면서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시점에 논란만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9% 하락했다. 개인 대주주 영향이 큰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깊었고, 실적 컨센스를 맞추지 못한 업종과 기업은 급락세가 나왔다.

외국인은 5월 이후 국내 증시를 꾸준히 순매수했지만 8월14일 500억원 순매도를 시작으로 18일 5천100억원, 19일은 오전까지 2천억원 가량 매도 중이다.

8월 들어 코스피 등락률은 21%인 반면, 일본 닛케이 225(+6.4%), 중국 상해(+4.7%), 대만 가권(+4.0%)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좋은 상태로 코스피만 나홀로 하락세인 것을 보아 최근 하락의 원인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영향이 아닌 세계 개편안 등 대

내적인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200~300%로 시사하는 트럼프의 발언 또한 최근 반도체 업종 조정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미국 시간 기준 8월27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수치를 따라 추후 반도체 업종 투심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21일 미국 FOMC 잭슨홀 미팅과 8월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 22일 파월 의장의 연설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속도와 인하 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흐름이 PMI 지표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느냐를 눈여겨볼 시점이다.

또한 이번 주말 미·러·우 3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내 여론은 “전쟁을 빨리 끝내자”가 더 많은데 회담을 통해 만약 휴전이 확정된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통해 원유 가격 통제력을 얻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얻는, 힘 있는 국가들의 자국 이익 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17일 미국 가상화폐 3대 법안이 통과된 후, 7월 말 백악관에서 주요 가상화폐 기업 CEO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1년 전만 해도 모두 규제 당국으로부터 소송당하거나 조사를 받았었는데, 1년이 채 못 돼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비트코인은 71%, 이더리움은 56% 올랐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50%, 로빈후드 주가는 거의 3배 상승했다.

이제는 미국 주류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 중이고, 401K나 미국 공공기관 퇴직연금에서도 가상 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뜻하고 또한 금융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금융완화는 금융비용 하락과 혁신을 의미하지만, 늘 버블 붕괴로 귀결되곤 했다. 물론 지금 당장 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변화의 초기 단계이고 트럼프는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가상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의 다음 목표는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제 24시간 거래를 제공할 예정이고 미국이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속속들이 도입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정책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증시 부양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한 지금, 우리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할 시기로 보인다.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3!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2!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1!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idolbom.go.kr

“여행의 모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캐논라이브

[호주 퀸즐랜드 여행 편]

2025 여름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게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8월 31일(일)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9월 8일(월)

캐논스토어 캐논코리아총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본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